

# 이슬람, 모성, 참여: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일리자 시장의 여성정치인 정체성 활용 전략 사례 연구\*

서지원\*\*

## 요약

---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여성할당제 등 외부적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대표성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여성 정치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은 무엇인지 역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이슬람화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인도네시아 아체의 주도 반다아체에서 부시장을 연임한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의 사례를 통해 종교의 보수적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 정치인이 젠더 정체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여성의 자유로운 외출 등 각종 ‘반이슬람적’ 행위를 적발, 단속하여 ‘단속의 여왕’이라고 불리면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는 일리자의 정책은 보수적 모성을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여성 대표자가 소수인 사회에서 여성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사할 만한 전략이라고 이 연구는 해석한다.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B00018).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심사자 선생님들과 인터뷰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현지조사를 도와 준 레일라 주아리, 셀리, 아판 람리, 페리 쿠수마, 리니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겸 HK연구교수, suhjiwon@gmail.com

**주제어:** 여성정치인, 여성의 정치참여, 샤리아, 아체, 인도네시아

---

## I. 들어가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은 많은 나라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8년 독재자 수하르토의 하야와 함께 민주화를 맞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첫 의회 선거인 1999년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9%였던 데 반해 여성할당제의 도입과 함께 2009년에는 여성의원인 18%로 2배나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는 각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때 적어도 3명 중 1명을 여성으로 하지 않으면 명부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할당제를 강화했다.<sup>1)</sup> 그러나 각급 의회와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비율이 끌고 있는 관심과 여성할당제 강화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 방안에 비해 실제로 공식 정치에 진출한 여성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 여성정치인들 본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어떠한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그다지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성정치인들은 남성들보다 덜 부패할 것이라거나(Paath and Linggasari 2013), 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에 세심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식의 가정(Julia 2009) 하에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의회 내 여성 대표의 비율이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에 도달한 적이 없어 여성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4%로 낮아졌는데, 이는 개방형 정당명부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제 입법에의 기여 등 실질적인 측면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Iwanaga and Loreskär 2009). 그러나 여성정치인이 줄곧 소수라면 그들이 소수인 상황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미룰 수 없으며, 반면 이후에 여성정치인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면 여성정치인이 소수자로서 행사하는 행위자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의 차원에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세속주의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복장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의 이슬람화 시도가 눈에 띄게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아체주에서는 간통·음주·도박 등을 태형으로 처벌하는 이슬람 형법이 실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슬람화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Broecker 2010; Holike 2011) 정치에 진출한 여성들의 정책과 전략은 더욱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체(Aceh)주의 주도인 반다아체(Banda Aceh)시에서 두 차례 부시장을 연임하고 최근 시장직에 오른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Illiza Sa'aduddin Djamal)의 사례를 통해 여성정치인이 여성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아체주에서 유일한 여성(부)단체장으로 당선된 일리자 부시장은 이슬람화가 인도네시아 다른 어느 곳에 비해서도 급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체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올린 사례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리자의 정치적 전략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간통·자유연애·동성애·여성의 밤중 외출 등 각종 ‘반이슬람’ 행위를 반다아체시에서 몰아내고자 단속하는 ‘샤리아의 수호자’로서의 면모인데, 그는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여성 일반의 정치적·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협의체에의 여성 참여를 증진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일리자의 양면적 정책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부진한 사회에서 여성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으로서, 보수적 모성이라는 여성 정체성의 한 측면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연구의 배경으로서 아체에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 특히 일리자의 정치적 성공이 위치하는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아체의 정치에서 여성이 차지해 온 비중과 역할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룬 이후, 아체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도입과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그 후 “보수적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정치지도자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하에 일리자의 주요 정책인 샤리아 단속과 여성 참여 증진에 대해, 2013년 초 반다아체시에서 실행한 현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한다.

## II. 아체의 정치와 여성

### 1. 여성의 정치적 진출: 17세기부터 헬싱키 협정 이후까지

아체가 예로부터 여성 지도자를 더러 배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의 여왕들과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 다르크가 현대 서구 정치에서 여성들이 지도적 위치로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듯이, 아체의 역사도 정치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여성 리더십에 정당성을 부여할 때 이용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시대 여성들의 정치적 위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

로 보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체의 각급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자바와 북부수마트라 등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반다아체시 지방정치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는 일리자 시장의 경력은 한층 돋보인다.

아체의 여왕들은 17세기 중후반 54년간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시 작은 아체의 부강했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탄 이스칸다르 무다(Iskandar Muda, ‘젊은 알렉산더’)의 딸 술타나 사피아투딘 샤(Safiatuddin Syah)였다. 이스칸다르 무다의 왕위는 애초에 사피아투딘의 남편인 술탄 이스칸다르 타니(Iskandar Thani)에게 계승되었으나 그는 취미인 보석 수집에 국고를 낭비하는 등의 행동으로 귀족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1641년 그가 사망한 후 왕위는 아내인 사피아투딘에게 계승되었다(Khan 2013). 그 이후 1699년까지 4명의 여왕이 아체를 통치했다.<sup>2)</sup>

아체의 여성 지도자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187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아체 전쟁의 영웅인 쏫 나 딘(Cut Nyak Dhien, 1848-1908)으로서, 첫 남편과 두번째 남편을 모두 네덜란드군과의 전투에서 잃고 1905년에 체포될 때까지 게릴라 투쟁을 이끌었던 전사이다. 아체 전쟁에는 쏫 나 딘뿐만 아니라 여성 게릴라 지도자로 추앙받는 다른 인물인 쏫 므티아(Cut Meutia, 1870-1910)를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참가했으며, 네덜란드 측 문서에서 이름 없는 여성 전사들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Siapno 2002).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반식민주의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은

2) Reid(2003)에 따르면 여왕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여러 왕국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도였다. 오늘날 북부아체의 록스마웨(Lhokseumawe)에 세워진 동남아 최초의 술탄 왕국 파사이(Pasai)에도 여왕이 있었으며, 오늘날의 태국 최남부 지역에 위치했던 빠타니(Patani) 술탄 왕국은 16세기 말부터 수십 년 동안 여왕들이 통치했다. 이슬람권 전체에는 역사상 적어도 15명의 여왕이 존재했다고 한다(Schröter 2008).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등 식민지 지배와 저항을 겪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Blackburn 2008; Richter 1990), 아체의 경우 그 저항의 형태가 게릴라 전투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쫓 나 딘과 쫓 브티아는 1964년 인도네시아의 민족영웅(pahlawan nasional)으로 추서되었고,<sup>3)</sup> 아체 이외의 지역에서도 독립투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1950년대의 다룰 이슬람(Darul Islam) 운동,<sup>4)</sup> 1976년에 시작되어 2005년까지 계속된 자유아체운동(GAM; Gerakan Aceh Merdeka)의 독립투쟁 등 오랜 분쟁의 시기를 거치며 아체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그다지 제고되지 못했다. 다룰 이슬람 운동이나 자유아체운동 모두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한 채 남성들 위주로 운영되었다. 분쟁 시기 아체 여성의 의사결정권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비공식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자면 남성들의 부재 때문에 여성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sup>5)</sup> 무장 분쟁에 의해 여성들이 주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급 의회 등 공식적 영역에의 진출도 한 자릿수 정도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여성 대표의 부재는 특히 분쟁 이후 2005년의 헬싱키 협정에 따른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는 초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수하르토 이후의 인도네시아가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토 전역에 지부를 설치해야 선거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

3) 송승원(2013)은 인도네시아의 민족영웅들이 자바 출신의 남성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아체의 여성 전사들은 이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다.

4) 다룰 이슬람은 인도네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는 무장운동으로서 1950년대에 아체와 서부자바, 남부술라웨시에서 일어났다.

5) 여성단체 발레슈라(Balai Syura) 대표 누르시티(Nursiti, 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로 정당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온 반면,<sup>6)</sup>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유아체운동이 서명한 헬싱키 협정과 이를 입법화한 2006년의 아체정부법에서는 자유아체운동 반군의 지방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아체에서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처음 실시된 2009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유아체운동의 아체당(Partai Aceh)이 아체주의회의 69석 중 총 33석을 거머쥐며 승리했지만, 33명 중 여성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정당인 골카르당에서 3명, 국민수권당(Partai Amanat Nasional)에서 1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하여 2009년 아체주의회의 여성 비율은 5.8%에 그쳤다.<sup>7)</sup>

아체당의 여성 외면은 분쟁 당시 여성의 주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자유아체운동 지도부 남성들의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자유아체운동에는 주로 참가자들의 아내나 미망인, 딸 등 가족들로 이루어진 여성 대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농발레’(Inong Bale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는 요리, 간호 등의 후방 업무만을 담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무기를 들고 훈련을 받아 전투에 참가하거나 첩보 활동에 종사한 전투원들도 수백 명에 달했다. 그러나 분쟁의 종식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무기를 반납한 자유아체운동 남성 전투원 3천 명에게 각각 2천 5백만 루피아, 그리고 비전투원 대원 6천 2백 명에게 각각 1천만 루피아의 보상금이

6) 가장 최근 개정된 정당법은 75% 이상의 광역단위(provinsi)와 50% 이상의 기초단위(kota, kabupaten)에 지부를 설치해야 창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지역정당의 탄생은 불가능하다.

7) 헬싱키 협정과 아체정부법의 통과 이후 수많은 지역정당이 결성되었지만 상당수는 자격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선거에 나설 수도 없었고, 선거에 나섰다 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09년에 2명 이상의 주의원을 배출한 지역정당은 아체당뿐이었다.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지역정당 중에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정당인 PARA(Parpol Aliansi Rakyat Aceh Peduli Perempuan)도 있었다(Siregar 2012).

지급된 데 반해,<sup>8)</sup> 800여 명의 여성 전투원들은 중앙정부의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국제이주기구에서 마련한 지원금에 의존해야 했다.<sup>9)</sup> 이는 자유아체운동이 ‘여성 전투원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상금이라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여성들과 나누어 갖지 않으려는 의도로 추측된다.<sup>10)</sup>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아체당은 의원직이라는 한정된 정치적 자원을 여성들과 나누어 갖는 데에도 대단히 인색했다.

2014년 선거에서 아체당은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속에 아체주의회에 3명의 여성위원을 진출시켰고, 골카르당에서 4명, 국민수권당에서 2명 등 그 외의 정당에서 당선시킨 여성들을 포함하면 2014년에 선출된 아체주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배가 넘는 14.8%로 뛰어올랐다(Naimah 2014). 그러나 여성 단체장의 비율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일리자 시장이 부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2006년에는 아체의 전체 단체장 후보 중 여성이 단 5명으로 260명 중 1.92%에 불과했으며, 이 중 당선된 후보는 일리자 부시장뿐이었다(Zakina 2010; Grossmann 2011). 반다아체시는 아체주의 주도이지만 특별히 여성의원의 진출에 유리한 곳은 아니다. 2009년에 선출된 반다아체 시의원 30명 중 여성은 단 1명이었다(Siregar 2012). 그런가 하면 일리자 부시장의 성공을 소속

8) 1천만 루피아를 원화로 환산하면 115만원 정도로, 이 역시 많은 금액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자유아체운동이 무기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 전투원의 숫자를 축소 보고했다는 설이 사실이라면 남성 전투원 개개인도 수령한 금액은 더욱 적을 것이다. 한편 전투원들에게는 농지의 지급이 약속되기도 했다.

9) 국제이주기구(IOM 2007)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아체 재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18명의 여성 전투원에게 1인당 창업자금 1천만 루피아를 지원했다고 한다.

10) ‘이농발레’에 대한 정보는 샤디아 마르하반(Shadia Marhaban, 필자의 인터뷰, 2013년 2월 2일 반다아체)과 익명의 전직 반다아체 인권운동가(필자의 인터뷰, 2013년 2월 5일 반다아체)에서 얻었다.

정당의 인기로만 환원할 수도 없다. 일리자와 짝을 지어 출마한 시장 후보 마와르디의 소속 정당 민주당(Partai Demokrat)이 반다아체에 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일리자의 소속 정당인 통합개발당(Partai Persatuan Pembangunan)은 2009년에 반다아체시의회에 단 1명의 의원만을 진출시킨 군소정당으로 전략한 처지였다.

정리하자면 일리자의 반다아체 부시장 당선 및 재선은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예외적인 성과로서, 아체의 정치적 전통이나 반다아체시의 특성, 소속 정당의 인기 등 다른 요인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일리자 개인의 정치적 노선과 전략에 대한 주목이 더욱 필요하다.

## 2. 샤리아의 도입과 실행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형법이 주 정부 수준에서 조례(‘카눈qanun’)<sup>11)</sup>로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기초단위(kota, kabupaten)에서도 샤리아에 근거했다고 주장되는 다양한 조례들이 선포되었다. 일리자의 정치적 전략은 이러한 아체의 이슬람 관련 조례 및 그 단속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아체에서의 샤리아 도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전통이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13세기 말에 이미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앞서 언급했듯이 1950년대에는 다룰 이슬람 세력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체에서도 이슬람 형법은 실행되지 않았는

11) 아체에서는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방 조례(peraturan daerah)를 공식적으로 ‘카눈’(qanun)이라고 부른다.

데,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형법이 없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이슬람의 특성과 인도네시아 국가의 특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에 전파된 이슬람은 이슬람법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는데, 이러한 성격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유지되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 정체성을 가진 많은 이들이 기도나 금식 등 종교적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 경전중심적 종교 해석을 바탕으로 종교적 의무 실행과 이슬람식 법·제도 확립을 중시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1970년대부터 진행된 이슬람 부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김형준 2014a; 김형준 2014b). 둘째, 비록 무슬림이 절대 다수이기는 하나 다종교적인 인도네시아 사회의 통합을 위해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차단하고자 했던 인도네시아 건국 과정에서의 고민은 이슬람 형법의 전면적 실행이라는 선택지를 헌정주의의 바깥으로 밀어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슬람 신자에게 샤리아 준수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소위 ‘7단어’(dengan kewajiban menjalankan syariat Islam bagi pemeluk-pemeluknya)로, 기독교도가 다수인 동부 인도네시아를 포용하기 위해 ‘7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한 이후 이슬람 형법과 인도네시아 국가의 분리는 건국이념의 일부나 다름없는 것이 되었다. 수하르토 하야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이슬람 정당이 ‘7단어’의 부활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이슬람 형법의 전면적 실행은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논외의 문제로 남아 있다.

아체에서 예외적으로 이슬람 형법을 허용하게 된 데에는 1998년 수하르토 체제의 종식 이후 분리독립운동이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다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sup>12)</sup> 1999년 하비비 정부 하에서 통과된

12) 자유아체운동의 목표는 분리독립이었으며, 자유아체운동 지도부가 중앙정부에 아체에서의 샤리아 실행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당시 많은 아체인들이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샤리아 실행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샤리아는 1950년대 아체에서 활발했던 다룰 이슬람

아체특별주에 관한 법률은 아체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샤리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000년 12월 19일 반다아체를 방문한 외히드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아체에서 이슬람 형법을 전면 실행한다고 선포했다. 다룰 이슬람과는 달리 세속주의를 표방하던 자유아체운동 측은 이에 대해 국외에 아체 독립운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라고 전면 반발했지만, 아체의 지방정치엘리트는 환영했다. 이에 2002년에 처벌 수단으로 태형이 도입되는 한편 음주와 도박, 부부가 아닌 남녀가 남들과 떨어져 호젓한 공간에 있는 것을 뜻하는 ‘칼왓’(khalwat)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들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샤리아 경찰(Wilayatul Hisbah)과 법원이 만들어졌다 (Miller 2006; Broecker 2010).

한편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슬람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샤리아 조례’라고 불리는 수십 건의 조례와 단체장의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는데, 성매매·도박·주류 판매 금지, 이슬람식 복장 의무화 등을 담은 이러한 조례와 명령들은 예로부터 이슬람 성향이 강한 서부자바, 남부술라웨시, 서부수마트라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샤리아 조례’는 주정부의 조례가 아닌 기초단위의 조례 또는 행정명령으로 권위가 낮은 편이었고, 그나마 2006년 이후에는 새로운 조례가 거의 제정되지 않은 데다 기존의 조례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형준 2014b; Andy et al. 2010). 반면 아체에서는 주정부의 샤리아 조례가 꾸준히 집행되고 있으며 분쟁의 종식 이후 새로 선출된 기초단위의 단체장들이 앞다투어 ‘샤리아 조례’ 및 명령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이슬람 형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정부의 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에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

운동의 목표이기도 했다.

수 없는 참신한 내용이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분쟁 시기 자유아체운동이 세속주의를 표방했으며, 이슬람 형법의 도입을 중앙정부의 정치적 음모 정도로 평가절하한 데 반해, 그들이 지방정치에 뛰어든 이후에는 이슬람 형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초단위 정부 수준에서 각종 ‘샤리아 조례’의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여성의 바지 착용을 금지하면서 노상 단속을 펼치고, 지방정부 예산으로 치마를 구입하여 바지를 입었다가 단속된 여성에게 지급한 서부아체 지사(bupati)는 아체당 소속이었으며, 여성들이 다리를 벌리고(일명 ‘응앙깡ngangkang’)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금지하여 2013년 초 외신을 달군 록스마웨 시장과 같은 해 성인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무용 공연을 하는 것을 금지한 북부아체 지사 역시 자유아체운동 출신으로 아체당 정치인이었다.<sup>13)</sup> 다만 주정부 수준에서는 헬싱키 협정 이전에 선출된 주의회가 2009년에 임기를 마치기 직전 통과시킨, 투석형을 허용하는 통합 샤리아 형법 조례(Qanun Jinayat)에 자유아체운동 출신이자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이르완디 유수프(Irwandi Yusuf)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은 채로 보류하고 있다가,<sup>14)</sup> 차기 아체당 주지사 하에서 투석형을 삭제한 채로 보완 및 수정하여 완성한 바가 있어 투석형의 도입을 막은 것만큼은 자유아체운동 출신 정치인들의 공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와 기초단위에서 실행되는 많은 조례가 여성의 복장 등 신체에 대한 제약일 뿐만 아니라,<sup>15)</sup>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13) 북부아체에서는 2015년 들어 미혼 남녀의 오토바이 동승, 옷가게에서의 마네킹 진열, 공공장소에서의 키보드와 가라오케 기계의 사용, 중등학교에서의 남녀 합반 교육 등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가 아체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초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Nurdin 2015).

14) 이르완디는 이후 자유아체운동 출신을 주축으로 한 또 다른 정당인 아체민족당(Partai Nasional Aceh)을 결성했다.

15) 지방 조례 중에는 남성의 신체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남부아체에서는

활동 공간 및 시간을 제한하게 되고, ‘칼왓’을 범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은 상대방 남성보다 낙인 효과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 등 아체에서 샤리아 집행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2012년에는 남녀 친구들과 공원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16세 소녀가 샤리아 경찰에 체포된 후 자신이 성매매 종사자가 아님을 믿어 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Simanjuntak 2012). 그러나 아체에서 성차별이든 인권이든 기초단위의 새로운 조례를 반대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를 들먹이며 주정부 차원에서 실행되는 샤리아 자체에 과감하게 반대하는 정치·사회 세력은 없다. 여성운동가나 인권단체라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절차적 문제에 관해 지적하거나, 지금의 방식이 아닌 대안적 방식의 샤리아를 주장할 뿐이다(Moch 2013).

### Ⅲ. 일리자의 주요 정책과 여성 정체성

1973년생인 일리자 시장은 수하르토 시대에 이슬람 정당들을 강제로 통합하여 만든 통합개발당 소속의 정치인이다. 할아버지가 반다야체를 둘러싼 아체버사르(Aceh Besar)의 도지사를 두 차례 지내는 등 아버지와 어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 수많은 가족들이 정계에 몸담았던 지역의 정치 가문 출신이다. 통합개발당의 반다야체 시지부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한 후 반다야체 시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6년 실시된 단체장 선거에서 관료 출신인 민주당 소속 마와르디 시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sup>16)</sup> 2012년

남성 공무원이 턱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Reza 2013).

16) 일리자 사야두딘 자말 반다야체 부시장(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야체).

선거에서 다시 마와르디 시장의 러닝메이트로 재선되었으며, 2014년 2월 마와르디가 사망하면서 시장직을 승계했다.

지역의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이라는 일리자의 배경은 그의 이른 정계 입문과 정당 내에서의 빠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33세의 나이로 처음 부시장에 출마했을 때에는 일리자 개인이 득표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정견이나 노선보다는 외모나 참신한 이미지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시장이 아닌 부시장으로서 두 번 선출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일리자의 정치적 전략보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다아체시에서 민주당이 누리는 인기가 당선에 더 중요한 변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선거 이전에는 관료 경력밖에 없었던 마와르디 시장의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았던 데 비해 일리자 부시장은 언론에 대단히 자주 노출되었던 점, 또한 일리자 시장의 소속 정당인 통합개발당이 반다아체시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략했는데도 2012년 선거에서 새로운 정당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2012년의 재선은 집안 배경이나 정당 연합의 득표력 등 외적 요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으며, 일리자 개인의 정치적 능력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 작용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나 하는 것을 계량화하여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정계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여성정치인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 1. 샤리아 단속과 모성

일리자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단속을 지휘하여 신문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핑크족과 성매매, 프리섹스, 동성애, 서양식 기념일 등

각종 ‘반이슬람’ 행위와 집단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명령을 내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타나 단속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리고 단속에 대해 자주 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이슬람 행위의 금지와 관련되어 일리자가 가장 먼저 전국 단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08년 말 반다아체시가 새해맞이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년 양력 12월 31일 밤 폭죽을 터뜨리고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는데, 반다아체시 당국은 이러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이에 대해 일리자는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슬람적이지 못하며 무슬림의 관습이 아니고, 새해는 기도를 하며 맞이하는 편이 좋다”라고 주장했다(The Jakarta Post 2008). 일리자 시장의 반다아체시는 2015년 새해를 맞아 “이슬람 새해는 따로 있다”라며 새해맞이 행사를 다시금 전면 금지했고(Suherdjoko and Kusumasari 2014), 이슬람의 전통이 아니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이유로 발렌타인데이를 금지하기도 했다(Merdeka.com 2015). 그러나 새해맞이나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는 금지령을 내리고 각급 학교와 마스지드 등에 공문을 전달했을 뿐(Serambi Indonesia 2015a),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실제로 축하하는 행위를 한 시민들을 체포했다는 보도는 없었다.<sup>17)</sup>

일리자의 단속이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2011년 라마단 기간에 행한 호텔 객실 급습이다. 일리자가 지방행정경찰(Satpol PP)과 샤리아 경찰을 동원하여 직접 현장에서 지휘한 이 단속에서는 샤리아에 위배되는 간통이나 칼왓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투숙

17) 2011년 말의 새해맞이를 다룬 Reza(2013)에 의하면, 샤리아 경찰은 폭죽과 나팔을 압수하고 반다아체 근처의 해변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수천 명이 몰래 구입한 폭죽과 나팔을 가지고 거리로 몰려나오는 바람에 단속에 실패했다고 한다.

객이 안에 있든 없든 반다아체 관광호텔의 객실마다 강제로 문을 열어젖혔다. 이에 대한 호텔업계의 항의와 비판 의견도 있었는데, 2011년이 ‘반다아체 방문의 해’로 지정된 마당에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다(Harian Aceh 2011a; Teuku Kemal Fasya 2011).

호텔 객실 급습이 지역 수준에서 호텔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같은 해 기획된 핑크족 단속 및 강제수용 캠프는 일리자 부시장과 반다아체시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도시에서는 핑크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반다아체시에서도 100여명의 핑크족이 몇 개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2011년 초 샤리아 경찰과 지방행정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었고, 밤에 무리지어 놀다 체포되어 구류를 살거나 삭발을 당하는 등 ‘재교육’의 대상이 되곤 했다(Nuridin 2011a). 샤리아 경찰은 핑크족 커뮤니티가 반국가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15개 ‘단체’의 명단을 언론에 발표했으며, 7월의 라마단 시작 직전에는 일리자 부시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속에 걸린 핑크족이 경찰에게 구타당하는 일도 있었다(Reza 2013).

더 큰 문제는 2011년 12월 반다아체의 핑크 커뮤니티가 핑크음악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벌어졌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하여 아체의 이슬람지도자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Ulama, MPU)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기도 한 이 콘서트에 대해 일리자 부시장과 반다아체 당국은 즉석에서 취소 명령을 내렸고,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공원에 모인 핑크족들을 일제 검거했다. 체포된 65명의 상당수는 반다아체 시민이 아니라 자카르타, 서부자바 등 타 지역에서 콘서트 관람을 위해 방문한 젊은이들로, 이들은 아체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전원 삭발당한 채 강제로 호수에 입수되었다(Antara and

Nurdin 2011; Nurdin 2011b).<sup>18)</sup>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진, 삭발당하고 팬티만 입은 채 호수에서 떨고 있는 사진은 세계 유수의 외신에 소개되었다. 65명의 핑크족은 이후 반다아체 근교 경찰학교에 마련된 캠프에 10일간 수용 후 석방되었는데, 보름 정도 뚜렷한 죄목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당한 셈이었다(Adi 2011; Harian Aceh 2011b).<sup>19)</sup> 이에 대해 일리자는 “아체는 샤리아 지역인데, 핑크는 명백히 샤리아에 위배된다”라고 밝혔으며(Nurdin 2011b), 반다아체시 경찰은 핑크족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데다 남성들은 문신을 새기는 등 샤리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Simanjuntak 2011).

2012년 4월의 성공적 재선 이후에도 일리자는 샤리아의 이름으로 여러 반이슬람 행위에 대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2년 상반기에는 반다아체의 한 구역을 메단 방향의 대로와 잇는 다리가 새로 놓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리지어 놀며 시간을 보내는(‘농크롱 nongkrong’) 장소로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명소가 생기자 데이트하러 오는 커플들도 늘어났고 개중에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 밤중까지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근처 팡오 라야(Pango Raya) 마을 젊은이들이 야간 순찰을 돌며 밤중 데이트와 같이 지역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커플들을 내쫓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신세를 진 피해자들도 더러 있었다. 일리자 부시장은 2012년 말 이 마을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 첫 방문에서는 공개적으로 지역의 관습에 대한 존중을 표했으며, 두번째 방문에서는 아예 샤리아 경찰 및 대중조직(ormas), 즉 자경단과 함께 밤중에 나타나 직접 단속에 참가했다

18) 여성 핑크족의 경우 삭발은 피했지만 여경처럼 짧게 머리를 잘라야 했다(Nurdin 2011b).

19) 반다아체 출신의 핑크족 13명은 이후에도 재교육을 이수해야 했다(Michaels and Johnson 2012).

(Kloos 2014).<sup>20)</sup>

다음 해 3월 자카르타의 한 영자신문은 어느 주말에 만다아체에서 벌어진 단속들을 소개했는데(Nurdin 2013), 단속의 대상이 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호텔에 남성과 함께 있다가 ‘칼왓’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성매매가 의심되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 있었다. 그 중 일리자 부시장이 지휘한 단속은 아예 처음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리자와 동행한 샤리아 경찰이 밤늦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성 15명을 체포한 경우였다. 이 여성들의 혐의는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밤늦게 집 밖에 머물렀다는 것이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만다아체 근교의 다른 식당에서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야식을 먹고 있던 여성 3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여성들은 다시는 같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참회한 이후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20) 아체의 샤리아 형법 ‘집행’에는 관습법인 아닷(adat)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간 자경단의 활발한 단속(razia)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칼왓’ 등의 샤리아 형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 법원으로 가지 않고 마을 수준에서 ‘아닷에 의해 해결’되는데, ‘해결’이 의미하는 바는 마을 어른신에게 설교 듣기부터 강제 결혼까지 다양하며 (Feener 2013, 176), 이 과정에서 자경단에 의한 각종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행해진다. 이슬람 그룹에 의한 단속의 사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자경단 활동이 시작된 것은 분쟁이 종식된 2005년 이후이다(Kloos 2014). 주민들이나 자경단이 국가기구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전통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조윤미 2007; 2014), 자바 등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화 이후 이슬람 단체가 도박장과 성매매 업소, 나이트클럽 등을 습격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2002년의 발리 테러 이후 정부가 이러한 습격에 대한 사법 처리 의지를 보이자 주춤해진 반면(Wilson 2006), 아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자경단의 단속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들은 아체에서 전폭적으로 금지된 도박장과 성매매 업소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게뿐만 아니라 해변, 공원이나 거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행하는 일도 빈번한 데다 심지어 개인의 집을 습격하기도 하지만, 경찰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Broecker 2010; Kloos 2014). 일리자의 팡오 라야 마을 단속 참가에 대해 어느 관찰자는 자경단에 의한 기존의 단속이 국가가 공공의 도덕을 수호하도록 돕는 것이었다면, 일리자의 단속은 오히려 국가가 지역 공동체를 돕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라고 평한다(Kloos 2013).

이 무렵 일리자는 반다아체를 즐기고 있는 ‘프리섹스’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일리자에 의하면 학령기 청소년들이 ‘프리섹스’에 대거 관련되어 있으며, 성산업과 동성애 등이 근절되어야 할 ‘프리섹스’의 범주에 포함된다. 학령기 청소년들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단속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이 적발될 경우 미용실(살롱)과 카페를 즉각 폐쇄 조치하는 것은 물론, 성산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용실에 신규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겠다고 일리자와 반다아체시정부는 발표했다(Serambi Indonesia 2013a; Hery 2013). 또한 일리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관, 자취방,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동성애가 반다아체를 즐기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자백이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아체주가 실시하고 있는 샤리아 조례에는 남녀 사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마땅히 동성애 처벌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Serambi Indonesia 2013b; Pasandaran and Nurdin 2013). 이미 2009년에 주의회가 승인한 통합 샤리아 형법 조례(Qanun Jinayat)에 남녀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금지와 태형 100대의 형량이 들어 있었지만(Moch 2013; Reza 2013), 이르완디 주지사가 이 조례를 거부한 이후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될 통합 조례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어떻게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sup>21)</sup>

지금까지 살펴본 일리자의 단속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리자는 아체의 다른 기초단체장들과는 달리 새

21) 2014년 9월 마침내 주의회를 통과한 통합 조례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엄벌 기조를 유지했다. 남녀 동성애자들은 적발될 경우 최대 형량으로 태형 100대, 100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킬로그램의 벌금을 선고받는데, 이는 간통과 같은 형량으로 이 조례에 의해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죄목은 강간뿐이다(Siti and Zulfikar 2014).

로운 조레나 명령을 만들어 자신의 업적으로 삼기보다는 이슬람적 가치, 지역의 규범과 관습 등에 느슨하게 기대어 단속에 나서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차원에서 동성애를 규제하는 조레가 없다고 지적하여 2009년부터 이미 존재하던 조레안에 힘을 실은 것 이외에 최근까지 일리자가 이슬람 관련 조레의 제·개정을 추진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sup>22)</sup> 그런가 하면 새해맞이, 발렌타인데이, 핑크 문화, 여성들끼리 밤에 커피를 마시며 노는 행위 등은 아체주에서 제정한 기존의 조레에 명시된 죄목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크게 보아 이슬람적 가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리자와 시정부 또는 샤리아 경찰이 금지령을 내리거나 직접 단속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위반자는 대부분 체포 후 훈방되며, 태형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일리자에 대해서는 여론몰이만 할 뿐 입법이나 처벌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었다. 일리자가 프리섹스 근절 캠페인을 벌일 때, 반다아체시의회 의회 소속 의원은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프리섹스 근절 조레에 대해서는 별도 기구 설립으로 인한 예산 소요 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만만한 청소년들이나 잡아들이는 시정부가 샤리아 집행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Yuli 2013).

일리자가 경찰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핑크족 박멸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빠인 이스칸다르 하산(Iskandar Hasan)이 아체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실(Michaels and Johnson 2012)이 한몫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처럼 단속 아이디어와 인맥 등을 활용하여 언

22) 2015년 6월 일리자는 시장령으로 관광·오락·체육시설과 PC방, 커피숍 등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는데, 지역 신문(Serambi Indonesia 2015b)에 실린 전문을 보면 외신에 ‘여성의 야간 통행금지’로 소개된 이 명령이 여성에 대해 가하는 제약은 밤 11시 이후 여성의 해당 시설 노동 금지와 샤리아에 어긋나지 않는 복장 착용밖에 없어 오히려 기존의 단속 내용에 비해 온건한 편이다. 다만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야간 시설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심의 등 정치과정을 거치며 협상을 해야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조례나 명령 등을 일단 명문화하면 철회하기도 힘들고 꾸준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권위의 추락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단속의 지휘 및 참가는 얼마든지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유연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단속 위주의 전략은 아체에서 샤리아와 ‘이슬람적 가치’가 경계가 모호하면서도 대중적 인기를 쉽게 끌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모성에 대한 강조이다. 핑크족, 프리섹스, 동성애, 밤중 데이트 등 일리자가 단속을 벌인 사안의 대부분은 샤리아나 아체 지방의 관습을 떠나 엄격하고 보수적인 부모라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행위로서, 단속 대상도 청소년층인 경우가 많았다. 프리섹스와 성산업, 동성애의 경우 딱히 청소년층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기 힘든 데도 일리자는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린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고, 잘못된 길에 빠진 많은 청소년들이 결혼가정 자녀들이라고 언급하며 시정부가 가정을 대신하여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Serambi Indonesia 2013a). 핑크족 단속에 대해서도 단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것이라면서 “법에 의하면 집이 없는 아이들은 나라가 보살펴야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아무 데서나 잠을 청하는 핑크족 청소년들이 노숙자나 다를 바 없다며 “엄마로서 내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본다면 정말 가슴이 아플 것이다”, “핑크족 아이들을 전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내 사랑을 느꼈으면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Michaels and Johnson 2012).

정리하자면, 각종 자의적 단속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요하게는 일리자가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종교성을 강조하기 위해 택

한 전략이며, 모성의 이름으로 단속을 정당화한 것을 보면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운 전략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일리자 자신이 “샤리아 이슬람의 집행으로 [유권자가] 여성에게 반다아체를 두 번이나 이끌도록 신뢰를 주었다”라고 평가하듯이,<sup>23)</sup> 이것은 성공적인 득표 전략이었다.

## 2.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

그런데 여성으로서의 전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페미니스트 칼럼니스트 줄리아 수르야쿠수마는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정치인들의 특질과 개성, 배경은 대단히 다양하며 모든 여성정치인이 세심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인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한 자질을 갖춘 인도네시아의 여성정치인 5명을 소개했다. 일리자 부시장도 그 중 한 명으로 소개되었는데, 그는 당선된 지 3년 만에 지역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포함하는 젠더 주류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진보적인 변화를 다수 지지했고, 그 결과로 2명의 여성 구장 등이 탄생했다는 것이다(Julia 2009).<sup>24)</sup> 일리자의 정책에 대한 줄리아의 설명이 모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 데다 여성 구장의 탄생을 일리자의 정책 때문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지만, 일리자가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지지한 것은 사

23) 일리자 반다아체 부시장(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24) 여기에서 구장(camat)이란 기초단위(kota, kabupaten) 하위의 행정단위인 군/구(kecamatan)의 책임자로서 임명직이다. 2013년 초 당시 반다아체에는 여성 구장은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단위인 70개 마을(desa)에는 여성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회(Badan Pemberdayaan Perempuan dan Keluarga Berencana) 위원장 바드룬 니사(Badrin Nisa, 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실이다.

그 중 하나는 줄여서 ‘무스레나’(Musrena; Musyawarah Rencana Aksi Perempuan)라고 불리는 여성행동계획협의체이다. 인도네시아 각급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협의에 참여하여 지방개발 계획위원회(Bappeda;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Daerah)의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무스렐방’ 또는 개발계획협의체(Musyawarah Rencana Pembangunan) 회의가 열린데,<sup>25)</sup> 무스레나는 여성들만 모여 같은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는 자리로서 2007년부터 반다아체 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각 동리(gampong)에서는 협의를 거친 후 구 단위의 무스레나 회의에 여성 대표를 2명씩 파견하는데,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무스레나는 반다아체시에 있는 9개의 구를 각각 3개씩 묶어 3차례 열린다(Nursiti and Eva 2012). 무스레나에 파견되는 여성 대표는 마을에서 협의하여 정하며, 보통 수하르토 시대 이래로 각급 행정단위의 장의 부인, 즉 마을의 경우에는 이장의 부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관변 여성조직인 가족복지회(PKK, Pembinaan Kesejahteraan Keluarga; 이정태 2011)에서 1명이 파견된다. 다른 1명은 뒤에서 설명할 예정인, 반다아체시에서 일리자가 새로 조직한 발레이농(Balee Inong) 조직이 있는 경우 그 대표가 파견된다.<sup>26)</sup>

무스레나에 대해 반다아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계획에 의 여성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일리자가 실시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Nursiti and Eva 2012). 그러나 개발계획에 여성 참여가 부족한 문제를 처음으로 파악하고 무스레나를 제안한 것은 쓰나미 원조를

25) 같은 협의체에 대해 무스렐방(Musrenbang)이 아니라 무스렐방(Musrembang)이라고 줄여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26)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장 바드룬 니사(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그러나 가족복지회 이외의 대표 1인은 마을의 협동조합 등에서 파견된다고 설명하는 출처도 있다.

실행하던 독일의 원조기구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지부였다는 서술도 있다(Tempo 2014).<sup>27)</sup> 그런데 시행 첫 해인 2007년에는 독일기술협력공사에서 무스레나의 개최 비용을 지원했지만, 이후에는 시정부 예산에서 비용이 집행되었다(Tempo 2014). 따라서 일리자가 처음 제안한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스레나 사업의 지속에는 시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마와르디 시장의 사망 이후 시장직에 오른 일리자가 처음으로 수행한 공식 일정도 무스레나 참가였다(DiliputNews.com 2014).

무스레나는 애초에 여성이 남녀 공동의 협의체인 무스레방에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sup>28)</sup> 국제적으로 개발과 젠더 및 개발에의 여성 참여가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과, 무스레나가 반다아체시의 여성친화적 성격을 홍보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정부의 의지가 있는 한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스레나에서는 가족복지회와 발레이농, 어린이집(PAUD), 모자보건센터(Posyandu) 등 마을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물을 건립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되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들에게 임신·출산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가족복지회·어린이집·모자보건센터 책임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사안도 협의의 대상이 된다(Nursiti and Eva 2012). 또한 여성 창업 지원과 직업 훈련, 여성을 위한 소액대출 등의 사업이 무스레나를 통해 실시되기도 한다(Tempo 2014). 지방정부에서 꿈는 무스레나의 최대 성과로는 쓰레기 재활용이 있는데, 협의를 통해 마을의 여성들

27) 2007년 반다아체의 무스레방은 여성이 전체 참가자의 27%였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5%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28) 일리자 반다아체 부시장(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에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교육하여 쓰레기를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남는 거름은 정부가 구입하는 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sup>29)</sup>

이 외에 일리자 부시장이 추진한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마을 단위에서의 새로운 여성 조직인 발레이농이 있다. ‘여성회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발레이농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훈련, 정치 교육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에 역점을 둔다.<sup>30)</sup> 앞서 언급한 마을 단위의 기존 여성 조직인 가족복지회가 각급 행정 단위의 장의 부인들로 조직된 ‘부인회’의 성격을 갖는다면, 발레이농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발레이농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없는 여성을 포함하여 마을 여성들이 누구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녀회’로서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복지회와는 차별성이 있다. 처음에는 반다아체에만 이러한 여성 조직을 만든다는 데 대해 특히 가족복지회로부터의 반발이 거셌으나(Tempo 2014), 2012년에 이미 모든 마을에서 발레이농에 대표자를 보낼 정도로<sup>31)</sup> 단시간 내에 조직이 탄탄하게 세워진 상태이다. 의회 선거에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강화되어 각 정당이 적당한 여성 후보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썼던 2014년에는 발레이농 출신의 후보자가 각급 의회 선거에 18명 출마했으며, 그 중에는 반다아체시의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우도 있었다(Tempo 2014).<sup>32)</sup>

29)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장 바드룬 니사(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30)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장 바드룬 니사(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31) 아체 정치 여성의 집(Rumah Perempuan Politik Aceh) 회원들(필자의 인터뷰, 2013년 2월 2일 반다아체).

32) 총선거는 별도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단위의 의회와 광역단위·기초단위의 지방의회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일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일리자 부시장은 2010년에 ‘젠더친화적 도시’(Kota Ramah Gender)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다.<sup>33)</sup>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2014년 우선 심의 대상 조례 목록(Prolega)에 다시 들어갔으나 2014년 말까지도 통과되지 않았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정책의 계획과 집행, 감시까지 젠더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며,<sup>34)</sup> 무스레나와 발레이농 등 기존에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관련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Nursiti and Eva 2012)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들도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5)</sup>

일리자 부시장은 자신의 취임 이후 0.11%에 불과하던 여성 관련 예산이 5%로 늘어났다고 언급하는 등(Aceh Kita 2009), 여성을 위한 시 행정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적극적이다. 또한 무스레나와 발레이농, ‘젠더친화적 도시’ 조례안 등의 정책은 당적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필자가 2013년 초에 만난 여성정치인 및 정치지망생들의 모임 ‘아체 정치 여성의 집’(RPPA, Rumah Perempuan Politik Aceh) 회원 5명은 민주당, 골카르당, 나스렘당 등 모두 다른 정당에 속해 있었지만 일리자 시장의 여성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sup>36)</sup> 여성 단체장으로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 등의 여성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홍보한 것은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운 일리자의 정치적 전략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3) ‘젠더친화적 도시’에 대해서는 어법 오류라는 지적이 있다. 익명의 아체 여성운동가(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34)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장 바드룬 니사(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35) 현재 무스레나의 법적 근거는 2009년에 발표된 시장령이다(Nursiti and Eva 2012).

36) 아체 정치 여성의 집 회원들(필자의 인터뷰, 2013년 2월 2일 반다아체).

#### IV. 이슬람, 모성, 참여: 일리자의 정치적 전략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일리자의 주요 정책은 반다아체의 여성들에게 양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슬람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각종 단속을 이끄는 일리자는 여성들에게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밤중에 나다니지 말고, 자유롭게 남성 또는 여성과 교제하지도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샤리아 단속’ 중 각종 일탈 행위에 대한 제한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복장과 이동의 자유 침해 등 특별히 여성에게 해당되는 권리의 제한도 상당하며, 남녀의 접촉이나 성행위에 대한 단속도 사회 통념상 여성에게 더 큰 낙인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젠더 중립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일리자는 여성들에게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반다아체시의 여성들에게는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의사결정 협의체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개발 정책을 통해 혜택을 입고 있다. 여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리자의 이러한 양면적 메시지는 반다아체시와 그 너머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성과에 대해 전달하는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리자의 양면적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슬람적 가치 수호와 여성 참여는 양립할 수 있는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 주요 정책 중 한 가지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일리자 부시장을 만나려고 반다아체 시청에 갔을 때, 부시장 집무실 앞에서 필자를 기다리고 있던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장 바드룬 니사는 무스레나에 대해 설명하다가, 공동체에서 직접 의견을 구하는 협의의 성과로 문

지도 않은 핑크족 단속 문제를 꺼냈다. 지금 만일 핑크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정부에 실제로 핑크족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도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여 핑크족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7)</sup> 반다아체 시청에 한 시간 가량 머무르며 바드룬 위원장과 일리자 부시장을 만나는 동안 이 “정부는 사실 핑크족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발언과 앞에서 인용했던 “샤리아 이슬람의 집행으로 [유권자가] 여성에게 반다아체를 두 번이나 이끌도록 신뢰를 주었다”라는 일리자 부시장의 자평 이외에 샤리아 단속에 관해서는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대신 여성의 개발 참여와 정치적 대표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그렇다면 샤리아 단속은 단지 유권자의 인기를 끌기 위한 정책이고 시정부가 이에 열성적인 것은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며, 일리자의 진정한 의도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참여 증진에 있는 것일까?

같은 날 저녁에 다른 장소에서 만난 여성운동가는 일리자 부시장이 ‘젠더친화적 도시’ 조례 등의 여성 정책을 ‘팔고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체주에서나, 반다아체시에서나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조례가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는 참조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복장 등의 문제에 있어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sup>38)</sup> 반다아체시에서는 ‘젠더친화적 도시’ 조례안이 시의회에 머물러 있는 반면, 아체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헌장이, 그 다음 해에는 여성 보호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Moch 2013).<sup>39)</sup> 그러나 이것은 외국 원

37) 반다아체 여성권리부여-가족계획위원장 바드룬 니사(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필자는 인터뷰 요청 단계에서 ‘여성과 정치’에 대해 연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38) 익명의 아체 여성운동가(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39)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조례안은 아체에서만 통과된 것은 아니다. 서부자바와 반텐에서도 기초단위에서는 소위 ‘샤리아 조례’가 다수 통과되었지만 주 수준에서는

조 기관이나 엔지오를 염두에 둔 입법으로, 반다아체시에서처럼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은 샤리아뿐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여성운동가의 결론이었다.<sup>40)</sup>

한편 무스레나, 발레이농 등의 새로운 조직에 대해 일리자 부시장의 개인적 후견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위주로 이루어진 조직을 관리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복지회는 부시장이라는 직위를 통해 장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sup>41)</sup> 새로운 관변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조직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을 보아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새 건물을 짓거나 마을의 여성 일꾼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 위주여서 선심성 후견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참여 증진은 단지 홍보성 정책으로, 빈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이슬람적 가치 수호와 여성의 참여 증진을 모순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여성정치인이 젠더 정체성을 활용한 정치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부족하게나마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두고 진정성이 없는 빈말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체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샤리아나 이슬람을 강조하는 것은 아체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자유아체운동에서 아체 독립운동의 비종교적 성격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정부가 원해서 핑크족 단속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

---

인신매매 방지, 젠더 주류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Irwansyah et al. 2013).

40) 익명의 아체 여성운동가(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41) 여성단체 발레슈라 대표 누르시티(Nursiti, 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에 의하면, 가족복지회는 부인회이기 때문에 조직의 정점에는 주지사의 부인이 있다.

장은 이러한 맥락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반다아체시의 여성 관련 정책 중 ‘샤리아 단속’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참여와 관련된 정책 역시 선심성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 부분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

공식 정치에 진출한 여성들이 자신의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체 최초의 여성 술탄이었던 사피아투딘은 이슬람을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 통치했다고 한다. 화려한 보석 등으로 부유함을 과시했던 연극적인 스타일의 남성 술탄들과는 달리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아 신의 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지배자임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Khan 2013). 자바의 여성에 대한 한 연구(Kurniawati 2012)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자바에서 당선된 여성 단체장은 주 단위와 기초 단위를 통틀어 9.91%에 달하며 이는 자바 외의 인도네시아에서 당선된 여성 단체장의 비율인 4.22%보다 훨씬 높은 것인데, 당선된 11명의 단체장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두 히잡을 착용하여 자신의 이슬람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한다.<sup>42)</sup> 여성정치인들의 히잡 착용에 대해 신앙심의 발로가 아니라 종교의 정치적 이용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지만(Kurniawati 2012), 여성정치인들의 이슬람적 가치 수호에 대한 논의에서 신앙심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sup>43)</sup> 일리자의 샤리아 단속이 신앙을 실현하기 위한

42)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여성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공적인 활동에 임할 때면 반드시 히잡을 착용한다는 관찰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이 최근의 현상이라면, 남아시아권에서는 195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Jahan 1987).

43) 일리자의 경우 국제적인 이슬람 단체인 히즈붓 타흐리르(Hizbut Tahrir)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설도 존재한다. 익명의 JMSPS(Jaringan Masyarakat Sipil Peduli Syariat, 샤리아에 관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가(필자의 인터뷰, 2013년 1월 31일 반다아체). 반다아체시의 샤리아 단속 정책과 국제적 이슬람 정치운동 네트워크의 관련 여부는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서는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것이든, 아니면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면 양자 모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종교적 가치 수호가 여성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과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중동 지역과는 차별성을 띠는 이슬람 여성주의 담론이나 온건한 대중 조직에의 여성 참여 등이 강조되어 왔다(Doorn-Harder 2006; Wieringa 2009). 한 연구에서는 유망한 여성들이 샤리아의 집행이나 이슬람 국가의 건설 따위의 의제에 이끌릴 법하지 않으므로 이슬람 정치 세력은 여성 충원에 곤란을 겪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선거에서도 과격한 이슬람 정치 세력의 패배가 확실시된다는 세속주의적 입장에서의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다(Blackburn 2008). 그러나 이슬람과 관련된 여성운동의 여러 조류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전통주의 이슬람 단체 나흐다툴 울라마(Nahdlatul Ulama, NU)의 여성 조직인 파타야(Fatayat NU) 내부에 여성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는 달리<sup>44)</sup> 이슬람주의 정당인 번영정의당(Partai Keadilan Sejahtera)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경전주의의 입장에서 이슬람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며, 여성의 행위자성이 반드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평등이나 해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inaldo 2013).<sup>45)</sup> 일리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적 계산에 능숙한 여성이 얼마든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44) 아체에서도 파타야 엔우(Fatayat NU)는 인권·여성·LGBT 단체들과 함께 샤리아 조례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JMSPS 네트워크를 결성한 바 있다(Moch 2013).

45) 2009년의 통합 샤리아 형법 조례에 투석형이 삽입된 것은 번영정의당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Moch 2013). 번영정의당은 인도네시아 정당 중 가장 중동식 이슬람주의에 가까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의 교육·노동·보건권 등 기본권은 인정하고 있다(Holike 2011).

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보수적인 이슬람 가치의 수호를 주요 전략으로 삼을 수 있으며,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유권자들도 이를 선거에서 심판하기는커녕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일반적으로, 일련의 샤리아 단속 정책과 그에 대한 지지는 “왜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도달한 결론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성정치인들이 여성의 폭넓은 정치적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부진한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자신의 당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이 때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가치가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구태여 남성이 아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형이상학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정책을 통해 남성과는 구별되는 여성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여성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중요한 사안(kepentingan perempuan)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당들의 반응을 다루었다는 한 여성단체의 연구(Rio et al. 2004)는 여성할당제 30% 실현, 군부의 ‘이중 기능’(dwifungsi) 철폐,<sup>46</sup> 부패 근절 등을 그러한 사안이라고 내세우는데 이러한 접근은 여성의 관심사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사안’(women's issues)이라고 하면 사적 영역, 특히 아동 및 양육과 관련된 가치들을 가리킨다(Sapiro 1981). 미국에서는 주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원들이 여성·아동·가족과 관련된 주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Thomas 1991). 아체의 여성 정치지망생들에게

46) 군부에 안보 기능 이외에 국가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사회경제적 임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에 관해 질문했을 때에도 여성의 권리와 아동 보호라는 두 가지 대답이 나왔다. 여성의 권리는 은행 대출을 비롯하여 교육·법률·경제·보건 등 제 분야에 있어 여성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반다아체시정부가 실행하는 무스레나와 발레이논의 중요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편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 등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다.<sup>47)</sup> 이처럼 여성의 관심사 내지 이익(women's interests)과 모성이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여성 참여 증진 정책을 펴는 일리자가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의 이름으로 샤리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모순적이지는 않다. 핑크족·프리섹스·동성애에 대한 단속이 일리자가 주장하는 대로 모성의 발현이라면, 이것은 보수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관심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이며, 여성 단체장의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48)</sup>

정리하자면, 이슬람적 가치 수호와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은 보수적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정치인이 젠더 정체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두 갈래의 정책이다.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정치인들은 종교성과 신앙을 내세워 여성이지만 공식 정치에 진출한 자신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한편 여성 일

47) 아체 정치 여성의 집 회원들(필자의 인터뷰, 2013년 2월 2일 반다아체). 그런데 이들은 아체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반면 정당의 회의는 주로 저녁 시간 이후에 열린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밤에 다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일리자의 단속은 비판하지 않았다.

48) 그렇다면 여성의 복장과 밤중 외출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리자 부시장은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한 여성들 중 상당수가 살림을 우수하게 해내지 못하며, 늦은 오후에야 겨우 씻는 등 게으르다는 점을 비판했다(2013년 1월 30일 반다아체). 이러한 시각을 고려한다면 밤늦게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놀러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단속은 좋은 어머니가 되라는 채찍질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반의 정치 참여를 긍정하는 가운데 여성으로서 특별히 추구해야 할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보수적인 종교관에 기반을 둔 모성의 실현은 이에 알맞은 가치이다.

## V. 나가며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여성할당제 등 외부적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 대표성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의원이나 단체장으로 당선된 여성정치인들이 실제로 여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성주의적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흔히 ‘무늬만 여성’이라거나, 남성들에게 조종을 당한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진다. 일리자의 샤리아 단속 역시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과 그러한 정책을 펴는 여성정치인에 대해 여성으로서의 행위자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이 아닌 여성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놓은, 여성 정체성을 활용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남성중심주의적 사회 구조가 재생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정치인이 이슬람적 가치 수호와 보수적 모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젠더 정체성을 지운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여성임을 의식한 데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샤리아에 위배된다고 주장되는 각종 행위를 단속하여 ‘단속의 여왕’으로서 잘 알려진 일리자의 면모는 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반다아체시정부가 실시한

일련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샤리아 단속과 여성 참여 증진은 여성정치인이 흔치 않은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 의의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정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리자의 이와 같은 정책은 보수적 이슬람의 입김이 더욱 강해져 가는 아체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정치인 일리자가 현 시대의 아체가 낳은 산물이라고 해서, 이 연구가 모든 아체의 여성정치인들이 다 일리자와 같은 노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는다. 여성들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을 하고 밤중에 커피를 마시며 논다고 샤리아 경찰을 동원해 잡아들이거나 ‘모성을 발휘해서’ 핑크족 강제수용 캠프를 만드는 일리자의 단속 정책은 분명히 극단적이다. 또한 아체에서도 록스마웨시의회의 여성의원이 여성들의 오토바이 타는 자세를 규제하는 ‘응양깡 금지’ 조례에 항의하는 등(Irman 2013)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제한에 맞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여성정치인이 있다. 따라서 아체 여성정치인이나 경전주의적 이슬람이 세력을 떨치는 사회, 또는 그만큼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의 여성정치인이 모두 일리자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sup>49)</sup>

중요한 점은 일리자의 정치적 선택이 극단적이기는 하되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정책을 추구한 일리자가 선거에서 거둔 성과가 뛰어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책을 모방하거나 독자적으로 추구한

49) 이 논문에서 다룬 ‘이슬람적 가치 수호’의 사례들, 특히 일리자가 독창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실행되는 ‘이슬람적 가치 수호’에 비해 극단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함의가 아체를 넘어 인도네시아 전반에 적용된다고 선불리 말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보수적 이슬람과 경전주의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아체와 인도네시아의 간극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다.

다고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보수적 모성을 통해 자신의 여성 정체성을 드러내며 종교적 가치 수호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엮는데에 성공한 일리자 시장은 모든 여성정치인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정치인이자 있음직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보수적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정치지도자의 부상, 늘 그런 것은 아니라도, 여성의 권리 신장을 표방해 온 여성주의에 배치되는 흐름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여성정치인이 현실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관찰한 이 연구는 사례 연구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보완하는 한편, 여성의 행위자성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의 갈래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5년 04월 29일

심 사 완 료 일: 2015년 05월 19일

게 재 확 정 일: 2015년 05월 19일

## 참고문헌

- 김형준. 2014a. “머리말.” 김형준·홍석준 편, 『동남아의 이슬람화 1: 1970년대 이후 종교와 경제의 변화』. pp.5-11. 서울: 눌민.
- \_\_\_\_\_. 2014b. “이슬람 부흥의 전개와 영향: 인도네시아의 사례.” 김형준·홍석준 편, 『동남아의 이슬람화 1: 1970년대 이후 종교와 경제의 변화』. pp.19-54. 서울: 눌민.
- 송승원. 2013. “인도네시아 민족영웅 선정에 표상된 민족주의와 통치이데올로기.” 『동아연구』 33(1): 237-275.

- 이정태. 2011.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마을정치의 지속과 변화: 중부자바 수숙안(Susukan) 마을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 2007. “인도네시아 자경주의 폭력 사건에 관한 소고: 민의의 저항과 공권력의 왜곡 현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1(1): 291-318.
- \_\_\_\_\_. 2014. “길리 트라왕안(Gili Trawangan) 섬의 치안 이슈와 자경단.” 『민주주의와 인권』 14(1): 233-269.
- Aceh Kita. 2009. “Anggaran Perempuan Naik 5%.” July 28. <http://www.acehkita.com/2009/07/anggaran-perempuan-naik-5/>(검색일: 2015.8.13).
- Adi Warsidi. 2011. “Anak-anak Punk di Aceh Ditangkap.” *tempo.co.*. December 15. <http://www.tempo.co/read/news/2011/12/15/058371825/Anak-anak-Punk-di-Aceh-Ditangkap>(검색일: 2015.8.25).
- Andy Yentriyani et al. 2010. *Atas Nama Otonomi Daerah: Pelembagaan Diskriminasi dalam Tatanan Negara-Bangsa Indonesia*. Jakarta: Komnas Perempuan.
- Antara and Nurdin Hasan. 2011. “It’s a Tale of Two Acehs for 2 Events.” *Jakarta Globe*. December 12. <http://the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its-a-tale-of-two-acehs-for-2-events/484111/>(검색일: 2015.3.13).
- Blackburn, Susan. 2008. “Indonesian Women and Political Islam.”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9(1): 83-105.
- Broecker, Christen. 2010. *Policing Morality: Abuses in the Application of Sharia in Aceh, Indonesia*. New York: Human Rights Watch. <https://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indonesia1210WebVersionToPost.pdf>(검색일: 2015.8.25).

- DiliputNews.com. 2014. "Jadi Walikota, Buka Musrena Regional II Jadi Tugas Pertama Illiza." February 19.  
<http://diliputnews.com/read/25739/jadi-walikota-buka-musrena-regional-ii-jadi-tugas-pertama-illiza.html>(검색일: 2015.8.13).
- Doorn-Harder, Pieterella van. 2006. *Women Shaping Islam: Indonesian Women Reading the Qur'a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Feener, R. Michael. 2013. *Shari'a and Social Engineering: The Implementation of Islamic Law in Contemporary Aceh, Indone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ossmann, Kristina. 2011. "Women as Change Agents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Aceh, Indonesia." Andrea Fleschenberg and Claudia Derichs, eds. *Women and Politics in Asia: A Springboard for Democracy*. pp.97-121. Zürich: Lit.
- Harian Aceh. 2011a. "Turis Asing Tersinggung Ulah Petugas." July 29.  
<http://www.harianaceh.co/read/2011/07/29/14781/turis-asing-tersinggung-ulah-petugas>(검색일: 2015.8.13).
- Harian Aceh. 2011b. "Jumat Ini, Anak Punk Luar Aceh Dipulangkan." December 22.  
<http://www.harianaceh.co/read/2011/12/22/23916/jumat-ini-anak-punk-luar-aceh-dipulangkan-2>(검색일: 2015.8.13).
- Hery H Winarno. 2013. "Banyak Salon dan Kafe di Banda Aceh Jadi Tempat Mesum Pelajar." *Merdeka.com*. March 22.  
<http://www.merdeka.com/peristiwa/banyak-salon-dan-kafe-di-banda-aceh-jadi-tempat-mesum-pelajar.html>(검색일: 2015.8.25).
- Holike, Christine. 2011. "The State of Islam - Negotiating Democracy, Muslim Women's Rights and Morality in Indonesia and Malaysia." Andrea Fleschenberg and Claudia Derichs, eds. *Women and Politics in Asia: A Springboard for Democracy*. pp.71-96. Zürich: Lit.
-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7. "Female Ex-Fighters

- Start Small Businesses in Aceh.” May 29.  
<http://www.iom.int/cms/en/sites/iom/home/news-and-views/press-briefing-notes/pbn-2007/pbn-listing/female-exfighters-start-small-business.html>(검색일: 2015.4.26).
- Irman I.P. 2013. “Anggota Dewan Ini Minta Wali Kota Kaji Ulang Larangan Ngangkang.” *The Atjeh Post*. January 7.  
<http://atjehpost.com/read/2013/01/07/34462/5/5/Anggota-Dewan-Ini-Minta-Wali-Kota-Kaji-Ulang-Larangan-Ngangkang>(검색일: 2015.8.25).
- Irwansyah, Anna Margret, Yolanda Panjaitan, and Mia Novitasari. 2013. *Paradoks Representasi Politik Perempuan: Studi terhadap Perempuan Anggota DPRD Banten, DKI Jakarta, Jawa Barat*. Depok: Puskapol FISIP UI.
- Iwanaga, Kazuki and Patricia Loeskär. 2009. “Women Legislators and Their Impact on Public Policy.” Aazar Ayaz and Andrea Fleschenberg, eds. *The Gender Face of Asian Politics*. pp.3-24. Karachi: Oxford University Press.
- Jahan, Rounaq. 1987. “Women in South Asian Politics.” *Third World Quarterly* 9(3): 848-870.
- The Jakarta Post. 2008. “Aceh Forbids New Year's Eve Celebration.” December 31.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8/12/31/aceh-forbids-new-year%E2%80%99s-eve-celebration.html>(검색일: 2015.8.13).
- Julia Suryakusuma. 2009. “Dirty Politics, Clean Women?” *The Jakarta Post*. April 22.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9/04/22/dirty-politics-clean-women.html>(검색일: 2015.8.25).
- Khan, Sher Banu A.L. 2013. “Men of Prowess and Women of Piety: A Case

- Study of Aceh Dar al-Sal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4(2): 204-225.
- Kloos, David. 2013. “Strengthening Local Leadership. Sharia, Customs, and the Dynamics of Vigilante Violence in Aceh.” *Regime Change, Democracy and Islam: The Case of Indonesia*. pp.202-236. Final Report Islam Research Programme Jakarta, Universiteit Leiden. <http://media.leidenuniv.nl/legacy/irpfinal2013%282%29.pdf>(검색일: 2015.8.25).
- \_\_\_\_\_. 2014. “In the Name of Syariah? Vigilante Violence, Territoriality, and Moral Authority in Aceh, Indonesia.” *Indonesia* 98: 59-90.
- Kurniawati Hastuti Dewi. 2012. “Javanese Women and Islam: Identity Formation since the Twentieth Century.” *Southeast Asian Studies* 1(1): 109-140.
- Merdeka.com. 2015. “Wali Kota Banda Aceh Larang Perayaan Valentine Day.” February 12. <http://www.merdeka.com/peristiwa/wali-kota-banda-aceh-larang-perayaan-valentine-day.html>(검색일: 2015.8.13).
- Michaels, Samantha, and Emily Johnson. 2012. “Aceh’s Fundamental Clash: Punk Meets Shariah Law.” *Jakarta Globe*. February 26. <http://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acehs-fundamental-clash-punk-meets-shariah-law>(검색일: 2015.8.25).
- Miller, Michelle Ann. 2006. “What’s Special about Special Autonomy in Aceh?” Anthony Reid, ed. *Verandah of Violence: The Background to the Aceh Problem*. pp.292-314.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Moch Nur Ichwan. 2013. “Alternatives to Shariatism: Progressive Muslim Intellectuals, Feminists, Queers and Sufis in Contemporary Aceh.” *Regime Change, Democracy and Islam: The Case of Indonesia*.

pp.137-179. Final Report Islam Research Programme Jakarta, Universiteit Leiden.

Naimah Hasan. 2014. "DPRA 2014-2019 Akan Diisi 12 Perempuan." *Radio Antero*. April 30.

[http://portal.radioantero.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655:dpra-2014-2019-akan-diisi-12-perempuan&catid=46:ap&Itemid=82](http://portal.radioantero.com/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655:dpra-2014-2019-akan-diisi-12-perempuan&catid=46:ap&Itemid=82)(검색일: 2015.8.25).

Nurdin Hasan. 2011a. "Aceh Punks on the Run as Shariah Police Crack Down." *Jakarta Globe*. February 19.

<http://the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aceh-punks-on-the-run-as-shariah-police-crack-down/423562>(검색일: 2013.8.13).

\_\_\_\_\_. 2011b. "Deputy Mayor: Punk Community a 'New Social Disease'." *Jakarta Globe*. December 14.

<http://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deputy-mayor-punk-community-a-new-social-disease>(검색일: 2015.8.25).

\_\_\_\_\_. 2013. "Shariah Police in Aceh Arrest Dozens in Weekend Raids." *Jakarta Globe*. March 11.

<http://thejakartaglobe.beritasatu.com/news/shariah-police-in-aceh-arrest-dozens-in-weekend-raids/579006>(검색일: 2013.3.15).

\_\_\_\_\_. 2015. "Aceh Utara Akan Larang Pasangan Nonmuhrim Berboncengan." *Rappler*. May 4.

<http://www.rappler.com/world/regions/asia-pacific/indonesia/92074-aceh-utara-akan-larang-pasangan-non-muhrim-berboncengan>(검색일: 2015.8.25).

Nursiti and Eva Susanna. 2012. "Laporan Penelitian Musrena: Kontribusi Musrena terhadap Pengarusutamaan Gender dan Anggaran Responsif Gender di Kota Banda Aceh." Saiful Mahdi et al. *Membangun Kota Berbasis Gampong: Tinjauan terhadap Partisipasi Masyarakat*

- dalam Perencanaan Pembangunan di Kota Banda Aceh.* pp.68-97. Laporan Hasil Penelitian Kerjasama Program Riset, Pendampingan, dan Advokasi Pemerintah Kota Banda Aceh, Indonesia/Pemerintah Kota Apeldoorn, Belanda/Aceh Institute-Cordaid.
- Paath, Carlos, and Yohannie Linggasari. 2013. "Women Crucial to Cleaner Politics in Indonesia, Politicians and Experts Say." *Jakarta Globe*. March 11.  
<http://www.thejakartaglobe.com/home/women-crucial-to-cleaner-politics-in-indonesia-politicians-and-experts-say/579038>(검색일: 2013.3.15).
- Pasandaran, Camelia, and Nurdin Hasan. 2013. "Banda Aceh Deputy Mayor Pushes for Bylaw Criminalizing Same-Sex Relationships." *Jakarta Globe*. May 7.  
<http://jakartaglobe.beritasatu.com/news/north-aceh-head-bans-women-from-dancing-in-public-2>(검색일: 2015.8.25).
- Reid, Anthony. 2003. "Charismatic Queens of Southeast Asia." *History Today* 53(6): 30-35.
- Reza Idria. 2013. "Cultural Resistance to Shariatism in Aceh." *Regime Change, Democracy and Islam: The Case of Indonesia*. pp.180-201. Final Report Islam Research Programme Jakarta, Universiteit Leiden.
- Richter, Linda K. 1990. "Exploring Theories of Female Leadership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acific Affairs* 63(4): 524-540.
- Rinaldo, Rachel. 2013. *Mobilizing Piety: Islam and Feminism in Indone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o Ismail, Risma Umar and Titi Soentoro. 2004. *Suara Mayoritas Yang Samar: Studi tentang Respon Partai Politik terhadap Kepentingan Perempuan Menjelang Pemilu 2004*. Jakarta: Solidaritas Perempuan.
- Sapiro, Virginia. 1981. "When Are Interests Interesting? The Problem of

- Political Representation of Wome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3): 701-716.
- Schröter, Susan. 2008. “Female Leadership in Islamic Societies, Past and Present.” Dagmar Hellmann-Rajanayagam and Andrea Fleschenberg, eds. *Goddesses, Heroes, Sacrifices: Female Political Power in Asia*. pp.52-73. Zürich: Lit.
- Serambi Indonesia. 2013a. “Illiza: Free Sex Rambah Banda Aceh.” March 21. <http://aceh.tribunnews.com/2013/03/21/illiza-free-sex-rambah-banda-aceh> (검색일: 2015.8.13).
- Serambi Indonesia. 2013b. “Gay Rambah Banda Aceh.” May 5. <http://aceh.tribunnews.com/2013/05/05/gay-rambah-banda-aceh>(검색일: 2015.8.13).
- Serambi Indonesia. 2015a. “Wali Kota Larang Perayaan Valentine Day.” February 13. <http://aceh.tribunnews.com/2015/02/13/wali-kota-larang-perayaan-valentine-day>(검색일: 2015.8.13).
- Serambi Indonesia. 2015b. “Ini Isi Instruksi Illiza Yang Dipelesetkan.” June 12. <http://aceh.tribunnews.com/2015/06/12/ini-isi-instruksi-illiza-yang-dipelesetkan>(검색일: 2015.8.13).
- Siapno, Jacqueline Aquino. 2002. *Gender, Islam, Nationalism and the State in Aceh: The Paradox of Power, Co-optation and Resistance*. London: RoutledgeCurzon.
- Simanjuntak, Hotli. 2012. “After Aceh Teen's Suicide, Media to Review Reporting.” *The Jakarta Post*. September 18.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2/09/18/after-aceh-teen-s-suicide-media-review-reporting-hotli-simanjuntak.html>(검색일: 2015.8.25).
- Simanjuntak, Hotli. 2011. “Punk Culture vs Sharia in Aceh.” *The Jakarta Post*.

December 20.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1/12/20/punk-culture-vs-sharia-aceh0.html>(검색일: 2015.8.25).

Siregar, Sarah Nuraini. 2012. “‘Pemberontakan’ Perempuan Aceh Dalam Dunia Politik: Studi Keterwakilan Perempuan di Parlemen Lokal.” Nina Andriana et al. *Perempuan, Partai Politik, dan Parlemen: Studi Kinerja Anggota Legislatif Perempuan di Tingkat Lokal*. pp.47-96. Jakarta: Pusat Penelitian Politik LIPI.

[http://www.kas.de/wf/doc/kas\\_8361-1442-1-30.pdf](http://www.kas.de/wf/doc/kas_8361-1442-1-30.pdf)(검색일:2015.8.25).

Siti Nuraisyah Dewi and Zulfikar Husein. 2014. “Gay dan Lesbian Bakal Dihukum Cambuk di Aceh.” *VivaNews*. September 27. <http://nasional.news.viva.co.id/news/read/542608-gay-dan-lesbian-bakal-dihukum-cambuk-di-aceh>(검색일: 2015.8.25).

Suherdjoko and Kusumasari Ayuningtyas. 2014. “Celebrations to Go Ahead despite Grim End of Year.” *The Jakarta Post*. December 31.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4/12/31/celebrations-go-ahead-despite-grim-end-year.html>(검색일: 2015.8.25).

Tempo. 2014. “Berdaya Melalui Musrena.” December 28, pp.90-91.

Teuku Kemal Fasya. 2011. “Never Visit to Banda Aceh 2011.” *Harian Aceh*. August 10.

<http://www.harianaceh.co/read/2011/08/10/15717/never-visit-to-banda-aceh-2011>(검색일: 2015.8.25).

Thomas, Sue. 1991. “The Impact of Women on State Legislative Policies.” *The Journal of Politics* 53(4): 958-976.

Wieringa, Saskia E. 2009. “Women Resisting Creeping Islamic Fundamentalism in Indonesi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5(4): 30-56.

- Wilson, Ian Douglas. 2006. "Continuity and Change: The Changing Contours of Organized Violence in Post-New Order Indonesia." *Critical Asian Studies* 38(2): 265-297.
- Yuli Rahmad. 2013. "Pemko Banda Aceh Bermain-main dengan Masalah Seks Bebas." *The Globe Journal*. March 28. <http://www.theglobejournal.com/Sosial/pemko-banda-aceh-bermain-main-dengan-masalah-seks-bebas/index.php>(검색일: 2015.8.25).
- Zakina. 2010. "Menyoal Representasi dan Ruang Partisipasi Politik Perempuan di Nangro Aceh Darussalam (Suatu Tinjauan Yuridis-Feminis)." March 23. <http://portal.belitungkab.go.id/read-artikel/22/menyoal-representasi-dan-ruang-partisipasi-politik-perempuan-di-nangro-aceh-darussalam> (검색일: 2015.4.26).

Abstract

---

## Islam, Motherhood, and Participation:

A study of female politicians' identity strategies with the case of  
Illiza Sa'aduddin Djamal, mayor of Banda Aceh, Indonesia

Suh, Jiwon

Assistant Professor/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If, in Indonesia, discussions on “women in politics” have focused on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quota, it is also important to see what female politicians actually do and which political strategies they mobilize. With the case of Banda Aceh Mayor Illiza Sa'aduddin Djamal, the only (re-)elected female head of local administrations in Aceh, where concerns over Shariah and women's rights have been growing, this paper looks into how a female politician makes a strategic use of her gender identity in a religiously conservative society. Her two-sided policies of leading a series of sharia crackdowns that seriously limit women's rights over their bodies and facilitating women's empowerment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can be interpreted as being connected through the pursuit of conservative motherhood, which is a reasonable strategy for female politicians to justify their presence in societies where women are

underrepresented in politics.

**Keywords:** Women in Politic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Shariah, Aceh, Indonesia